여성의 시각으로 만드는 성평등한 도시철도



도시철도 역사(驛舍)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간으로서 표를 사고 승강장에 오르내리고, 환승을 위해 이동하고, 때론 사람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생성되는 공간이다. 현재 대구시 도시철도의 경우 총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91개의 역사에 하루 평균 약 44만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철도 정거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이자 공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공간이 처음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남성의 관점이 보편적인 시민의 관점으로 여겨져 여성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처럼, 대구 도시철도 역사도 건설되는 과정에서 성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여성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도시공간은 공공이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며, 여성이 행복해지면 그 혜택 또한 공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기에 도시공간으로서 도시철도 역사 공간 역시 여성에게 행복한 공간이 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 이용에 있어서 성평등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모든 시민들이 도시철도 역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1 대구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성인지 분석

● **도시철도 역사는 시민들의 이동공간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기에 편의 및 안전 등에 대한 성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시설물에 대한 성인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하루 평균 약 44만명 정도가 이용하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인 대구 도시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음
- 이에 성인지 관점에서 안전, 편의, 쾌적, 임파워링 공간으로서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성 주류화 실천 공간으로 재조명되는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가능성 탐색**

- 도시철도 역사 공간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는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은 다양한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가능하게 함

2 대구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1)]

●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는 도시 공간정책에서 나타난 젠더 이슈, 여성친화도시 젠더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

- 모니터링의 공간적 범위가 도시철도 출입구-대합실-승강장이라는 역사 공간과 전동차 내부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외부 공간과 연결되는 접근성을 제외하고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참여성을 지표로 구성

〈 표 1 〉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틀

젠더이슈	도시철도 역사공간
편의성	- 편의시설(화장실, 아동용 변기, 기저귀교환대, 상업공간, 벤치, 공중전화기) - 이동편의시설(보행로, 환승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내사인) -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의 전용공간 - 돌봄서비스 공간(일시 돌봄시설, 수유실, 영유아 돌봄화장실)
안전성	- 승하차시 안정성(지정된 승차위치,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 유모차 승하차, 스크린 도어) - 시설 안전성(화재사고에 대한 대비: 소방, 피난 대피, 방재시설, 비상전화, 스크린도어) - 보행 안전성(출입문 승하차시 안전도: 조명, 계단,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 범죄 안전성(범법행위에 대한 대비: 비상벨, 시야확보, 투명유리벽, 거울, CCTV, 순회경찰 배치) - 역무원의 정기적인 순찰 및 안전을 위한 조치 정도

1) 2017년 대구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대구시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함

(이어서)

쾌적성	- 역사공간 및 열차내부 청결상태 - 열차 내 소음의 정도 - 좌석의 안락성 - 조도의 적절성	- 열차 내부의 냉/난방 상태 - 열차 내부의 혼잡도 - 열차 내부의 공기 질 청정도 - 화장실, 수유실의 청결도
참여성	- 지하철 이용자 의견수렴 - 전문가 성별 참여 비율(위원회, 시민참여단,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 안전복지 관점 고려

- 취약계층의 경우 사고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응과 회복능력이 부족함. 그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 가능성이 높아 결국 위험의 불평등 현상을 낳게 됨
-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와 조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안전복지의 개념에서도 도시철도 역사공간을 살펴보아야 함

● 모니터링은 성주류화에 관심있는 시민 10명과 젠더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32개소), 2호선(29개소), 3호선(30개소) 등 91개 전 역사와 전동차 객실 내부에 대해 실시함

3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주요 개선안[2)]

<편의 및 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

● 대합실 및 승강장 전반에 걸쳐 시설물의 편의, 쾌적, 안전 고려

- 색채 및 조명 리모델링을 통해 밝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역사 내부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
- 역사 내부 계단의 경우 미끄럼 방지턱 설치 및 계단폭이 넓은 경우 중간지점에 안전바 설치 필요
- 녹색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자전거 수요자 파악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등을 달리한 자전거 설치





2) '2017 대구시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추진한 성인지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 중 개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안을 중심으로 제시함

● 승강기 이용에 있어 안전 및 편의성 고려

- 역사의 외진 곳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이용객의 불안감을 초래하기에 승강기 내부나 입구 밖에 CCTV 설치 필요
- 승강기 주 이용자는 노년층, 장애인,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임. 무더위가 심한 대구 기후를 고려하여 승강기 내부에 냉방장치 필요함. 조건상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우면, 비상시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이나 안전요원의 수시점검 필요

● 전 역사에 걸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인터폰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 도모
- 육아활동을 하는 남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모유수유공간과 수유공간, 기저귀교환 공간을 칸막이벽이나 커튼 등으로 구획

<화장실의 쾌적성, 안전성에 대한 요구>











● 새롭게 화장실을 배치할 수 없는 도시철도 역사의 특성상 안전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가시성 높은 비상벨 설치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연 감시성 확보

- 노후화된 1호선 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변기, 타일 등 전반적 리모델링 필요
- 별도의 청소 도구함을 만들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칸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인근 역의 경우 노인 이용객을 위해 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함

● 모자 화장실 혹은 유아 화장실의 경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모자 화장실 명칭이 돌봄을 엄마의 역할로만 규정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에, 가족 화장실 혹은 다른 통일된 명칭이 필요함
- 아이 거치대의 경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청결한 관리가 필요함

● 기저귀 교환대 내구성 강화 및 청결 유지

- 일부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벨트가 닳아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고정줄 추가 필요 및 수시점검
- 기저귀 교환대 위치의 경우 아이의 인권, 안전, 세면대와의 동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설정
-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 즉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을 조성하여 그 공간내에 설치하도록 해야함

● 사회적 약자 및 초고령 사회 노인 이용자를 대비한 화장실 공간의 재구성

- 장애인 화장실 외 별도 화장실을 만들기 어려우면, 장애인 화장실을 다용도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인케어기능(성인 기저귀교환대) 마련 및 화변기 안전바 설치

<광고물 설치 기준 마련 및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심의 필요>

● 무분별하게 게재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이나 안내 문구에 대한 규제 필요

- 비어 있는 광고문 게시판에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노약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 및 캠페인 포스터 등을 게시하여 활용도 제고

● 성차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 필요

-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 역사 및 객차내부 광고물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담긴 경우가 많음
- 광고물 게재 전 성차별성에 대한 심의 필요



〈지역명을 여성화하여 성차별적 언어 사용〉



〈여성의 수동적인 모습 표현〉

<지역주민의 생활속 공간으로서 활용>











● 주변 지역 특성(학교, 주민 연령, 시장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필요

- 청소년 전문쉼터, 중증장애인 전문놀이터, 책읽는 공간 등 역사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 지역 공공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의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유휴 공간 활용 필요
- 역사 내 유휴공간을 상가, 휴게실, 독서실, 만남의 광장 등으로 활용 경우에는 그 형태와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승하차 인원에 의한 혼잡도와 감시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이 외 도시철도 역사내 용역청소원 쉼터 환경 개선

- 대부분 오래된 역사의 경우 용역 청소원의 쉼터환경이 열악함. 주로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한여름 더위에도 별도의 샤워실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이 필요함

<법·제도 관련 정책 개선안>

● 도시철도 공간계획에 다양한 성별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 관련 위원회에 일정비율의 여성위원 참여
- 여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 다중이용시설 조성시 관련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의무화 조항 삽입

● 성차별적 광고 게재 금지조항 명시

- 대구도시철도공사 광고물 관리규정 제 6장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안내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설치 규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 화장실 가림막, 기저귀 교환대, 가족화장실, 자전거 경사로 표시, 쉼터, 안전표지 등 역사내 시설물의 경우 이용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역사 시설 및 객차 내 사인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안전가이드는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에,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홍보물이 아닌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함. 즉 관리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안전가이드를 마련하여야 함





● 성인지 교육 및 안전 교육 강화

- 역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성인지 모니터링과 근무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민대상 안전체험 교육 확대 및 강화
- 공공기관, 교육청, 기업 등과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 시민의식, 인권감수성 교육

-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가치관 교육 필요
-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교육 방안 마련



● 내용문의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경숙 kyhlks@dwff.or.kr 053. 219. 9977